

## “책임을 회피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 마태복음 23장 29-36절

29.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1.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32.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운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5.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36.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라

오늘 일곱 번째 저주 선언문은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책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만들거나 비석을 세우는 일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유대교의 전통적 관습을 따르는 것으로 성전 금고의 일부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적인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 | 이미지 찾기 | 스가랴, 압살롬의 무덤

지난 해 예루살렘성전을 걸으며 ‘힌놈의 골짜기’와 ‘King’s valley’를 걸으며 보았던 스가랴의 무덤과 압살롬의 무덤은 그 규모가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무덤과 기념비를 만드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선열들의 발자취를 기념하며 따르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기 위한 것이며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위선된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내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마태복음 23장 29-30절 말씀

29.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들의 전통을 따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놓았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부각하고 자신들은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선지자들은 당대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와 긍휼을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의롭지 못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참 잔인해집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고 죽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

30.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사람들은 제 삼자의 입장에서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이 개입되지 않은 데서 조금 더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위선자들은 자기와는 멀리 떨어진 일들에 대하여 호연장담하며, 자신은 조상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살아 있었더라면 절대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자랑 가운데 그들의 외식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그들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죄를 행함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조상들을 모욕하므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의 근대사를 정리하는 학자들을 보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보주의 역사가들은 친일을 부각시켜서 자신들의 역사를 미화하려고 합니다. 보수주의 역사가들은 건국 대하여 이야기할 때, 임시정부 건립과 더불어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세워졌다고 강조하며 진보 세력들을 배척합니다.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물론 공(功)과 과(過)를 잘 살피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 역사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아픔을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세워지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영웅들이 남쪽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 있었고,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 하는 수모를 견디면서도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를 지켜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사참배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도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시대를 살면서 신앙을 지킨 절개도 아름답지만 자신의 수치를 감내하고 교인들을 지키려 했던 마음

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으므로, 쉽게 평가하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우리의 몫’,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오래전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이라는 게시판에 올라왔던 논쟁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친일파 후손이라고 밝힌 글이 올라왔다.”

지난 20일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저는 친일파 후손입니다”라는 익명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조상이 꽤 높은 위치까지 올랐고 교과서에도 가끔 나온다”며 “그래서 재산이 많다. 이미 제 이름으로 수백억 대 건물 한 채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한다. 이게 죄인가? 제가 친일한 것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불린 재산도 많다. 친일파 자손 잘 산다고 욕하고 재산몰수 하자는데 그게 연좌제가 아니면 뭐?”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운동가 후손? 자기들이 독립운동했나?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라. 남이 가진 건물이 부러우면 열심히 일할 생각이나 해야지 언제적 조상 타령인가?”라며 비판했다.

이 글에는 하루 만에 16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특히 친일파 후손을 자처하는 또 다른 익명 댓글이 달려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저 또한 조상님이 친일파였고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집에서 살아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조상님이 친일했다는 사실은 수치스러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다. 힘든 상황에서 독립운동하신 1900년대 위인들께는 존경의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욕먹고 재산 몰수 얘기 들으면 억울할 때도 있다. 태어나기 전 얼굴도 모르는 조상님이 지은 죄로 욕먹는 거니까. 하지만 그분들 죄 위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제가 가진 부를 책임을 질 수 없기에 독립 열사 후손을 위해 무언가 하라고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죄송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과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사고가 저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교정’하려고 하지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던가,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 3/**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참 쉽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는 그 말이 너희를 증명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 너희가 바로 그들의 후손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너희 조상이니, 또 너희가 그들의 후손이니 너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들의 후손임을 인정한다면 너희가 그리 잘난 척 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 마태복음 23장 32절 말씀

32.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한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들만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19로 인해 교회와 시민들은 무엇이 ‘책임’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던져 보았습니다.

“왜 마스크를 쓰는가?”

어떤 사람은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되어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전염병이 옮겨올까봐 마스크를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코로나에 걸리고 나면 더 이상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6세기 유럽에는 페스트가 무섭게 창궐했고, 교회와 신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책임이 무엇인지를 답해야 했습니다.

1527년 루터에게 전달된 편지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페스트를 피해 도망할 수 있는가?”

라이프치히에서는 도미니크 소속 수사가 페스트를 피해 도망갔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비텐베르크 주민 가운데도 도시를 빠져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풍문을 루터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펜을 들어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요한 헤스 박사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답장은 [죽음 앞에서 도망해도 되는가?]라는 제목을 달고 출판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페스트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가운데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절망하게 만들며 그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을 대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성찬에 참여하여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제하시며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불인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충고합니다. 죽음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나 전염병이 퍼진 상황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장에 남아 있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루터는 강하게 말합니다. ...

루터는 자신에게 온

“전염병이 유행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피신을 해도 상관없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루터는 이 문제로 고민하는 대상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묻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니면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사람들을 돌보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그와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그와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가,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약한 사람인가?  
어쩌면 루터의 답은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공직자로 사람들을 맡아 지켜야 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이라도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럴 경우라도 사람들을 돌볼 친력이 충분하다면 그 밖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 피신함이 현명하다는 의견을 루터는 내어 놓습니다. - [Christianity Today] 2020년 5월호 강영안 교수 글 중에서-

결국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문제이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해하는 모습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경고!**

지금까지 말씀 중에 가장 강렬하고 자극적인 어투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자들에 대한 질책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33. 뱀똥아 독사의 새끼똥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은 성경에서 상징적인 동물로 여러 번 언급되는데, 여기서는 타락하고 저주 받을 대상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사의 새끼'라고 말하는 것은 독을 품은 뱀이란 의미보다는 **사단의 기질과 악마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서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독사와 그 새끼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 조상의 죄를 비난하고 있지만 실상은 똑같이 악한 족속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지옥의 판결'입니다. 지옥의 판결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질책에서 '너희도'라는 말을 통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에게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의 질책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35.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하여 질책하고 경고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이들의 죄가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하는 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전적

으로 저의 견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데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겉을 번지르르하게 치장하고 선을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스스로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주님의 마음이 답답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들은 자신의 조상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은 조상과 다른 존재라고, 죄를 지었던 조상과는 달리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죠.

결국 죄의 시작이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선민의식에서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민의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믿음으로 가지는 선민의식에는 겸손과 감사가 있지만,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은 우리를 교만과 독선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일곱 번의 질책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중성에 대하여 경고 했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너희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었듯 너희들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존재들이며, 지금 이 사회가 경험하는 악한 일과 아픔들에 대하여 너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하는 부분이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누군가의 잘못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씀과 판단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교만함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결국 말씀의 진리는 끊임없이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신앙에 그 아픔이 필요합니다.

존 비비어의 『광야에서』라는 책에서는 우리 인생에 광야가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답답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다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히즈일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있네

어쩌면 무서운 그 질책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광야는 아닐까요?

우리가 질책의 한 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23장 34-36절**

3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운 죽  
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운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5. 그러므로 익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36. 땅 위에서 흘린 익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조상들에게 보냈던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이들을 죽이고 못 박고 채찍질하는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되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35절**

35. ...땅 위에서 흘린 익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닌 경계입니다. 준비된 삶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죠.

아프고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꾸짖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  
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